



2023년 11월 5일(제1165호) 연중 제31주일

# 군중주보

발행 : 군중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군중과 제자들에게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하는 말을 실행하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복음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꾸짖으실 때가 많은데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니 의아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군중과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알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언행 불일치의 모습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에 등장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을 강조하고 기득권층인 자신들과 다른 수많은 군중을 나누어 자신들이 더 높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하고 말씀 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저 말뿐이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외침은 소음에 불과하고 그 말엔 권위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의

가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임을 강조하며 올라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복음의 가치를 사랑의 실천이라는 행동을 통해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 우리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높거나 낮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올라가는 것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짓눌린다고 하여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실천을 통해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낮아지는 것은 마치 경쟁에서 밀리고 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보시고 그에 맞는 기쁨을 주시기를 청하며 하느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오승수(미카엘) 신부  
비행(육군 제25보병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말라 1,14ㄴ-2,2ㄴ.8-10

회 답 송

◎ 주님, 제 영혼을 당신의 평화로 지켜 주소서.

제 2 독 시

1테살 2,7ㄴ-9.1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시고,

너희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

복 음

마태 23,1-12

영 성 제 송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

어덯 번째 시집

마리아는 야고보에게 최후의 형별을 행하는 형장에 따라오지 말도록 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나이 어린 야고보는 아무 보호자도 없고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고아로 남겨질 아주 어린 세 동생들을 거느리고 살아야 될 처지에 있었는데, 마리아가 형장에서 그 어린 야고보의 모습을 보고서 그 순간에 모정에 끌려 허약해지고 마음이 흔들려, 최후의 전투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덜 된 모습을 남에게 보여줄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야고보는 어머니에게 천당에서 다시 만나자고 작별 인사를 하고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야고보는 최후의 형별을 받고 순교하는 현장에 있어야 하는 감옥 사람들에게 어머니를 보살펴 드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지켜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다른 6명의 증거자들과 함께 순교로 개선할 십자가 형틀에 올라갔고, 안온하고 평화스러운 얼굴로 형장에 이끌려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망나니의 칼을 받고 1840년 1월 31일(음력 1839년 12월 27일)에 서른아홉 살의 나이로 영광스럽게 순교하였습니다.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경애하올 모든 신부님들에게 지극히 겸손되고 정에 넘치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저의 가련한 신자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 중에 기억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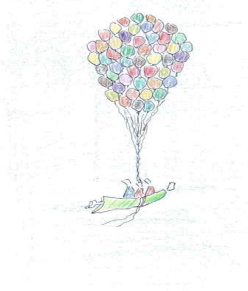
지극히 미약한, 조선 대목구의 교황 파견 선교사 최 토마스가 올립니다.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 발췌, 청주교구 양업교회시연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하늘로



풍선 붙여 타고  
저 파아란 하늘로.

바람에 몸을 맡겨  
저 높은 하늘로.

우리 아이들에게  
의지해서  
저 맑은 하늘로.

이렇게 하늘로.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왕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바리사이들



피터 폴 루벤스(1577년~1640년), 1610년~1615년경 제작  
 나무 위 유화, 144.1 x 189.1cm / 샌프란시스코 미술관

본 작품은 마태오 복음 22장 15~22절에 나오는,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사이들을 묘사한 것이다.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말로 올라미를 씌울까?” 고민하였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지만, 예수님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라고 말씀하시고 바리사이들을 물리신다. 이 작품에서도 예수님을 둘러싼 바리사이들과 그들이 예수님께 건넨 동전, 그리고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는 예수님이 묘사되어 있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다양한 표정으로 이 상황에 대응하는 바리사이들과 침착하고 위엄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신다. “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김은혜(앨리스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31주일: 봉회 김정섭 신부

◆ **교구장 등장**

- 백두산(제21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11월 5일(주일)
- 사제총회 및 연수  
 때·곳: 11월 7일(화)~10일(금), 안양 아론의 집
- 참사회의 14:00 / 사제평의회의 15:00  
 때·곳: 11월 7일(화), 안양 아론의 집
- 호국영령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  
 때·곳: 11월 8일(수) 10:00,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

“신교의 열매, 새레쌍새!” -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새레를 주어라.” (마태 28,19)